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2011년도 표어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신6:4-9, 마28:18-20)

행동지침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수요 강단 - 느헤미야서 강해

## 승리하는 협력의 습관 (느 3:1-32)

## The Cooperative Habit of Winning (Neh 3:1-32)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쌓아올리고, 황폐해진 성을 재건하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새로 건축하는 것이 더 쉬웠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일을 52일 만에 완수했습니다.



박노철 목사

느헤미야에게는 협력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3장에 거론된 이름은 75명이 넘고, 그들의 직업은 15가지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과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1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헌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영적인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일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삽과 곡괭이를 들고 성벽재건에 참여했습니다. 그 밖에 금장새, 향품장사, 고위관리, 기술자, 심지어는 이스라엘과 역사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던 기브온 사람들까지 동참하여 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사람을 동참토록 인도한 느헤미야의 리더십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에 여러 번 나오는 ‘그 다음은’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next him’으로 손에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모습을 하나의 건축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엡 2:20-22).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사도들의 가르침이 터가 되어서, 그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께 기준이 맞춰진 우리들은 하나하나의 벽돌이 되어서 쌓여져 결국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처소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사람들을 일에 동참시키는 일에 있어서도 그의 지혜와 기치를 발휘하여 효과적으로 인력배치를 했습니다. 기업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부흥하는 요인은 적절한 사람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고 합리적인 동기를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는 성벽을 재건하는데 동참한 각 사람의 이름이 지루할 정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각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며 칭찬하고 격려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 앞에 헌신하고 순종한 일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 재건이 자신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 이뤄낸 것임을 자랑스럽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서울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It was clear that Nehemiah went back to Jerusalem. It was a serious undertaking to rebuild the collapsed walls and dawn-fallen castle. It was rather easy to newly build them from the beginning. However, Nehemiah carried out rebuilding them in 52 days.

Nehemiah had a cooperative habit. The names mentioned in the Book of Nehemiah 3 were more than 75 persons, and their occupations were more than 15. He carried out God's great work together with many people's power. In v. 1 the involvement of the priests who devoted themselves to God became evident. They never said that they could not work because they should only bear spiritual duties. Instead, they were the first to hold a shovel and hoe and participated in rebuilding the walls. And the others, goldsmiths, perfume-makers, high ranking officials, technicians, and even men from Gibeon who were historically not in unison with Israel took part in rebuilding the walls merging their minds and hearts into one. This was the reason why it was God's grace and the leadership of Nehemiah who led many people to take part in the building of the wall.

In Nehemiah chapter 3, the English phrase, 'next to him' that appears several times is associated with the aspect of holding hand in hand. This is just the way of the church in which Jesus Christ is dreaming of.

The Apostle Paul described the way of the church as a building(Eph. 2:20-22). Jesus himself became the chief cornerstone, the building became the place of the Apostle's teaching and according to their teaching, all of us who belong to Jesus become a brick, one by one being stacked up and upon each other. Finally, it becomes a beautiful dwelling in which God lives by His spirit.

Nehemiah demonstrated his intelligence and ability, and effectively arranged all the people to take part in the work. Whether it is business, family, or church, the factor of revival is that a proper person should be arranged in the proper position and let them work with a good motive.

In Nehemiah 3, every participant who took part in rebuilding the walls was perfectly recorded as feeling tiresome. This means that Nehemiah remembered their work and sacrifice, and praised and encouraged them. God never forgets what we have already done in worship for Him and continue to do now. God records what we have done. No matter how small a task it is, God remembers what we have sacrificed and obeyed, and He records it.

My beloved Christia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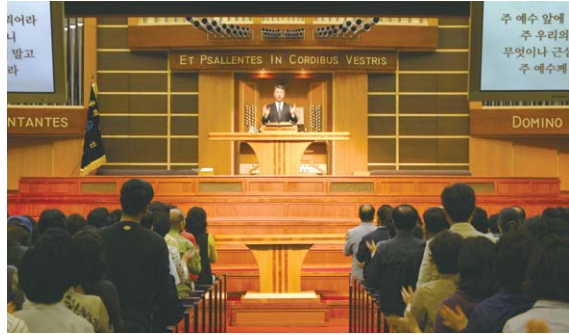
Nehemiah didn't rebuild the walls of Jerusalem by himself, but he proudly bore testimony for what all the people had done together with their strength and mind, and achievement. The Apostle Paul was capable of carrying out the mission of the gospel because there were his workers, Priscilla and Aquila who laid down their life.

Holding hand in hand in the midst of the almighty God's and His grace,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us will achieve God's vision that was given to Seoul Presbyterian Church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2011 홍해작전 승전 눈앞에

## 6월25일(토) - 홍해작전 승전의 날로 선포

지난 6월(월)부터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라는 주제와 "기도와 부흥"이라는 부제로 계속되고 있는 2011 홍해작전 승전일이 6일 앞으로 다가왔다. 교회는 25일(토)을 승전의 날로 선포하고 이날 예배 후 8층 만나홀에서 승전기념 떡잔치를 하며 26일(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홍해작전 승전감사예배를 드린다.



또한 승전 기념으로 장년은 이승언 성도(주넵스, 13교구)가 기증한 문구류를, 유아부부터 고등부까지 (7번 출석), 대청부(14번 출석)는 별도의 상이 주어진다. 승전의 날까지 모든 성도가 홍해를 건너 하나님

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기를 바란다.

# 변화를 주도하는 장로교회

## 2011 장로교의 날 / 7월10일(주일) 오후5시, 장충체육관



2011 장로교의 날 행사가 7월10일(주일) 오후5시부터 8시까지 장충체육관(3호선 동대입구역 5번출구)에서 열린다.

"변화를 주도하는 장로교회"를 주제로 진행되는 2011 장로교의 날 행사는 1부 감사와 찬양, 2부 개회식, 3부 장로교 전통예배, 4부 폐회식으로 마치게 된다.

다. 이종운 원로 목사(직전대표회장)는 이날 2부 개회식에서 격려사를 한다.

서울교회 모든 성도는 2012년 한국장로교총회 설립100주년을 준비하며 한교단 다체제를 이루는 이 대회에 적극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바란다.

# 2011년 2학기 장학생 선발

## 신청마감: 7월17일(주일) / 수여식: 8월7일(주일) 찬양예배시간에

우리교회 장학회(회장 김대호 장로)는 2011년 2학기 장학생 선발을 위한 추천을 받고 있다. 장학금은 브리스길라, 송암, 일반장학생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본교회 등록한지 1년 이상 자이며 교회봉사에 적극적인 자,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를 우선적으로 지급한다. 장학회 심사에 필요한 서류(교구추천서/교회학교추천서/찬양대 추천서 중 택

일, 자기소개서/신앙 간증문 중 택일,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를 7월13일(수)까지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정의 신청서는 본 교회 홈페이지(<http://www.seokhurchark.com>)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서류제출 시 연락처를 기재하고 본인의 사진을 필히 첨부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추천이 없는 부서나 교구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2011년 제11기 방글라데시 단기선교팀 선교바자

제11기 단기선교팀(단장 : 이강진 집사)이 "2011년 방글라데시 단기선교를 위한 바자"를 다음 주일부터 7월 24일까지 5주간 오전10시부터 8층 만나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단기선교팀은 8월 1일(월)부터 9일(화)까지 이슬람이 85% 이상인 방글라데시로 약30명이 파송되며 조남혜 선교사(어린이 호스텔 사역)와 박진영, 김진성 선교사(의료사역), 그리고 스프로토 바로이 목사(다카장로교회)와 협력하여 의료

및 이미용, 어린이 사역 등의 봉사를 할 예정이다. 우리 모두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번 바자에 적극 동참하고, 특히 바자 물품을 많이 기증해주시 바란다.

- \*바자물품 찬조 및 문의\*
- 단장 이강진 집사 010-5020-8663
- 회계 양정실 권사 010-9221-7506

# 목사님, 궁금해요!

##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7]

### (문 5) 창세기 1장은 화석층에 의해 알려진 시간의 길이와 일치하고 있는지요?

(답-2) : (지난 주에 이어)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 있게 조직적으로 그의 피조물을 지으셨습니다. 6단계로 지으실 때 첫째 날 둘째 날과 같은 말에 정관사가 빠져 있습니다. 정관사는 명사를 한정시키는 구실을 하는 것인데 '그 첫째 날'이라 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하나의 창조 순서를 말씀한 것이 한정된 시간을 말한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란 말씀도 24시간의 길이를 말한 것이 아니고 한 기간(Period)이 지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십계명 중 4째인 안식일을 기억하여야 하는 말로 인해 창세기 1장의 문자적 해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한 날을 구별하려는 것이지 24시간적 토요일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창 2:2-3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창조 후 24시간을 푹 쉬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완성되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창 2:4) 즉 여기서 날은 24시간이 아니고 기간을 의미합니다. 인류학자들은 175만년 전 인간을 주장하고 Neanderthal동굴 인간은 10만년 전에 이미 돌화살과 도끼를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아담 이전의 유인(類人)설을 주장하지 않는 한 창세기 역사와 과학자들이 추정하는 연대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 하셨으니 6일 창조를 6단계로 24시간이 아닌 어느 기간 동안 창조하신 것으로 보면 문제는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 계속)

# 6월 성경통독자 시상

##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 <6독> 5교구 이윤영 권사 <3독> 14교구 김종자 권사
- <2독> 14교구 김우숙 권사
- <1독> 6교구 이남복 권사 9교구 이남성 집사
- 11교구 이경희2 권사 12교구 윤정숙 권사
- 12교구 이인선 권사 13교구 김수정12 집사
- 14교구 이미연1 권사 16교구 한경신 집사

# 김형준 목사 초청 특별금요기도회

## 7월 1일 본당 2층

홍해작전기간 중 개인적으로 진행 된 금요기도회를 다시 시작하는 7월 1일 오후 8시20분에 동안교회 담임목사이자 한국교회 내적치유 사역의 선두주자이신 김형준 목사를 초청하여 말씀을 듣는다.



6.25 기념 특별기고

# 청년들이여, 애국하는 지도자들이 되자!

## 이갑진 장로 (12교구. 전 해병대사령관)

성경에서 청년들은 하나님나라 전파의 주역들이었다. 청년 예수님을 따르던 청년 제자, 청년 바울, 청년 여호수아, 청년 사무엘, 청년 기드온, 청년 다윗 등은 세상을 변화 시키는 주역들이었다. 그들은 리더로서 하나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조국을 위해 헌신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의 기독교청년들도 성경의 말씀을 따라 애국의 지도자들이 되어야 한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우리들 중 이 달에 국립현충원에 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분들에게 감사하며,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 조국의 안녕을 위해 묵념하며 기도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전쟁이 나면 중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겠다고 허세를 부렸던 이 나라 국방책임자의 거짓말에 속아 우리는 전쟁준비를 제대로 못한채 6.25동란을 당했다. 백만의 사상자와 천만의 이산가족을 내었다. 2000년 6월 김정일과의 6.15 남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대

통령의 귀국일성은 “이제 전쟁은 끝났다”는 말이었다. 그 후 11년, 우리는 서북도서 지역에서 다섯 번의 도발을 당했고, 천안함이 폭침되고 연평도가 포격을 당했고, 북한의 핵 앞에서 발가벗은 대한민국이 되었다.

또래의 북한 젊은이들을 나와 같다고 생각하지 말라. 필자가 백령도 여단장 시절 생선을 몰래 잡아 올리려다 배의 밧줄이 끊어져 무동력 전마선을 타고 흘러 내려 온 북한군 병사 두 사람을 건져 심문한 바 있었다. 그 중 간부급에 속한 21살의 하전사(하사)는 심문 도중 우리 심문관이 김일성과 김정일을 호칭 할 때 왜 ‘님’ 자를 부치지 않느냐고 당당히 항의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면서 내 부하들이 반대의 입장에 선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우리



는 지금도 155마일 휴전선에서 그렇게 철저히 세뇌된 내 또래의 아이들과 맞상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나라의 군대에는 김정일을 찬양하며 추종하는 병사, 장교들이 검거되었다. 정신을 차리자. 이 호국 보훈의 달에 나라를 위하는 기도에 앞서 먼저 나의 정신부터 바로 세워 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나라를 잘못 지킨 이스라엘을 백성들에게 나라가 망하고 적국에 포로가 되는 고난을 주셨다. 우리가 기독교 천국, 선교대국이라 자만하지 말자. 제 나라 지키기를 예사롭게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항하는 집단을 친구로 여겨 야합하는 백성에게서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명심하자. 서울교회 청년들이여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 된 애국의 지도자들이 되자!

김치신학세미나 중강

# 방글라데시의 부흥을 기대하며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제 20차 김치신학세미나가 열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15일 수요일 2부 예배시 수료식을 가지므로 종강하였다.

중강 예배에서 박노철 목사님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느헤미야의 리더십과 그의 개혁 정신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음을 설교하며 방글라데시 교회가 어떤 방법으로 부흥을 모색하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 신학계 석학들의 주옥같은 강의, 방글라데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위한 각종 토의, 목회자로서 자신들에게 생긴 새로운 비전들, 한국교회 부흥의 실제 등을 보고, 듣고, 배운 이들은 저마다 가슴에 뜨거운 불덩어리를 가지고 돌아갔다. 무엇보다 이들이 처음 경험한 새벽기도회는 한 마디로 충격이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



되는 한국교회의 목회 현장은 이들에게 큰 도전이었고, 자신들의 사역교회에서 꼭 이루고 싶은 프로그램이라고 입을 모은다.

20명의 방글라데시 교계지도자들이 열흘 동안 수료식을 같이 하며 유대를 맺은 것은 방글라데시 교회의

연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또한 이들이 방글라데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방법들을 나누며 얻어낸 전도 전략은 방글라데시 방방곡곡에서 열매를 맺게 될 터이니 여러모로 이번 김치신학세미나는 방글라데시 교회 부흥에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발생토록 하는 통로가 되었음에 틀림이 없다.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수 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한 치의 오차도 없는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열흘간 불철주야 수고한 김치신학세미나 위원회(위원장 박정선 장로)와 모든 봉사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글: 허숙 권사(편집부) / 사진: 정치은 집사



**김치 세미나 스케치**





김치신학세미나 참석자들 다락방 참관

앗쌀람 알라이꿈

김치신학세미나의 참가 목사님들이 지난 10일(금) 서울 교회 다락방 시스템 참관을 위해 4명씩 그룹을 지어 다섯 가정을 각각 방문했다. 박노철 목사님은 참관에 앞서 방글라데시 목사님들에게 교회의 Small Group, 곧 다락방 사역이 교회 부흥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설명하며 기도 후 이들을 출발하도록 했다.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신학교 교장으로 사역하는 Godfrey Baroi 목사 일행은 김용환 집사 댁에서 열린 3교구 17다락방(다락방장 임분도 권사)을 방문했다.



그룹이 모여 지난 주일에 들은 말씀을 다시 한 번 숙지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믿음을 격려하는 일들이 교회 부흥에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뒷자리에 앉아 시종일관 진지한 태도로 참관하였고, 자신들의 주요 사역과 시무하는 교회, 가족 사항 등을 자세히 소개하며 한결같이 방글라데시 교회의 부흥을 위해, 또 박해받는 기독교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였다.

예배 후 다락방 회원들과 방글라데시 목사님들은 서로의 기도제목을 나누며 뜨겁게 통성기도를 하고 다락방에서 정성껏 준비한 식탁에 둘러앉아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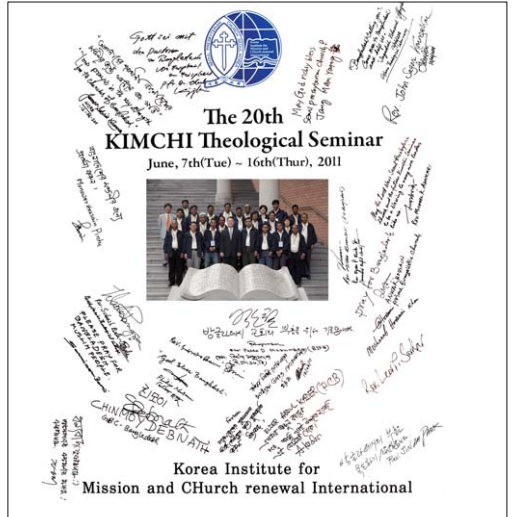
일행 중 다카에서 비교적 대형목회를 하는 Byron Prodyut Bonik 목사님은 가정집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교제의 모습이 무척 인상깊고 아름답다며 자신의 교회도 150 가정이 되므로 소그룹 시스템을 모색해 보겠노라고 했다.

글 : 허숙 권사(편집부), 사진 : 이승준 성도(편집부)

“앗쌀람 알라이꿈”,

일행이 들어서자 다락방 식구들은 방글라데시어로 참관자들을 반기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라는 찬양으로 방글라데시 목사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했고, 이들은 "돈노바 지슈",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는 찬양으로 화답했다.

이 날 예배를 인도한 유문건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는 동안 간간히 말씀과 교제에 관해 통역하며 소그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임마누엘 찬양대(부장:최학인 장로의 찬양으로 드린다. 류충기집사의 지휘로 "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H. N. Bartlett)" 등 합창 두곡과 "God of Our Father (G.W.Warren)"을 오르간(강민정집사)와 피아노(양경실 집사)의 듀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하진 성도가 팀파니를 담당한다.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월간신앙세계에서 6월21일(화) 복지 포플리즘과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주제를 갖고 대담한다. 23일(목)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 임원회를 소집한다. 25일(토) 총회표준주석편찬위원회를 소집한다.
- 농민교회설립 :2교구 전인화 은퇴권사 장남 강주해 목사 주은 농선교 교회설립 (담 임목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68번지 비전타워 21빌딩 901호 / 설립예배: 6월19일(주일) 오후5시
- 수상 : 16교구 김정순6집사(루디아 전도회) 6월11일 국제피부미용대회 대상수상
- 특담 : 16교구 정정환성도 방정미 성도 둘째 (정양일 집사 정정숙 권사 손자)
- 개업 : 16교구 유재숙 집사 하늘해뷰페 강남구 대치동 623 02)557-5811 12교구 나기태 권사 네티서어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풍산아파트상가 102호
- 주간식당 봉사: 베드로선교회(6.19) 바울선교회(6.26)
- 금주의 식사 : 14교구 이종창 집사 정명숙 집사 가정 (강래를 은혜중에 마치고, 교회제공)
- 흥애적인 책 제공: 흥애적인 섬김위원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1. Rev. Subroto Baroi (Dhaka Presbyterian Church Pastor)
  - (1) For The church growth, we pray for The Support for Pastor.
  - (2) Poor student sponsor for study.
  - (3) Bangladesh Muslim country we like to Evangelize. Please pray for that.
2. Anwar Hossain (IFB: Vice Chairman: (Isai Fellowship Bangladesh). Former BBS Director: (Bangladesh Bible society))
  - (1) pray for PEC New believers, PEC Evangelist & pastors
  - (2) We want to win Muslim people so pray for our Muslim community.
  - (3) Edwin Milton Kamokar (FH. Association(Food For The hungry International)and Savar Church General Manager)
    - (1) We have more than 220 Bengaly Staff 60% are Muslim. I am responsible for discipling, so I need prayer support.
    - (2) In our nations we see many corruption. Please pray for that.
3. Michael Kamal Adhikari (BICT: (Bangladesh Institute OF Christian Theology) Principal)
  - (1) Pray for God's grace and guidance and lead the bible school.
  - (2) Protection from natural dissenter.
4. James Saberio Kamoker (NCFB: (National Christian Fellowship Of Bangladesh) General Secretary)
  - (1) Evangelical ministries in Bangladesh, Lord's guidance and providence.
  - (2) Churches of Bangladesh should raise up. Christian can become more devoted and face challenges of Islamic evangelism.
5. Abdul Kader (LFB: (Light Foundation Bangladesh)Leader)
  - (1) Please pray for presbyterian church of Bangladesh for their New projects on primary sch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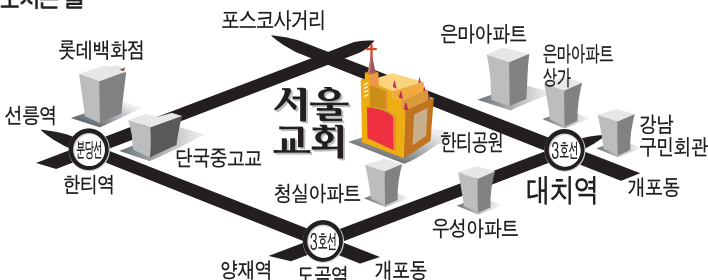
- (2) Please pray for the moderator of presbyterian church for wisdom.
7. Mosharaf Hossain Khan (LFB: (Light Foundation Bangladesh) Leader)
  - (1) Last one year we have developed an organization to reach the Muslim people. Our organization is "SEEK FOR LIFE BANGLADESH TRUST" please pray that God provide all the needs for our organization
  - (2) We have a plan to plant church in Dhaka City among Muslim educated people. Please pray that God opened the door for his ministry
  - (3) Bangladesh is a Muslim country. There are 160 million people live in this country. most of them are living with darkness without salvation. please pray for the Bangladesh citizen that they can get the real(?) salvation
8. Rev Godfrey Baroi (AOG: Assemblies Of God Bible College Principal)
  - (1) 86% muslim they should know Jesus so pray for Revival in Bangladesh.
  - (2) We need more unity among the believers pray for unity.
  - (3) We want to see more muslim people known to Jesus.
9. Wailes Rangsa (CCTB: (Christian College of Theology in Bangladesh) Professor)
  - (1) Our College of Christian Theology is an interdenominational organization, 24 Denomination and Mission involved with it. please pray our executive body and affiliates body. muslims.

이들 대부분은 방글라데시 무슬림들의 복음화와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바란다.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흥해작전 마지막 주간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흥해를 가르는 승전가를 함께 부를 수 있도록
2. 김치신학세미나를 통해 복음의 도전을 받은 방글라데시 리더들이 자국 부흥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3. 모든 세대들이 6. 25 전쟁을 기억하며 나라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애국애족 하는 서울교회 될 수 있도록